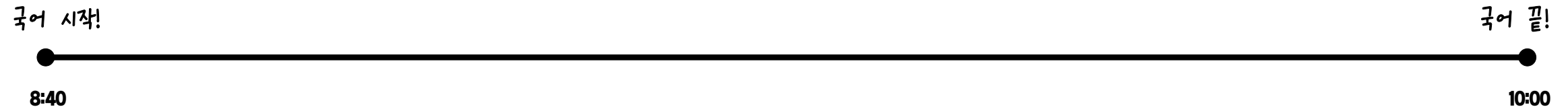


< 풀이 순서 & 시간 운영 계획 >



1. 보너스 지문(시간이 부족하면 버릴 지문)을 설정한다.
2. 세트별로 풀이 순서·시간을 설정한다. 단, 각 세트별 추가시간은 최대 2분까지 허용한다. (ex. 독서론[4분(+2)] → 현대소설[8분(+2)] → 단독서1[10분(+2)] → ...)
3. 실전에서, 세트별로 세이브된 시간은 보너스 시간에 편입한다. 이들을 모아 검토 및 못 풀 문제·보너스 지문의 풀이를 진행한다.

< 일교시의 행동강령: 실천 >

01 추가 시간 2분을 다 쓰면 가차없이 넘긴다.

- 세트별로 허용되는 시간은 '원래 계획한 시간' + '추가 시간 2분'이다. 이 원칙을 깨고, 한 세트에서 늘어지는 순간, 해당 세트의 어려움이 시험 전체의 어려움으로 번진다. 시험 전체가 흔들리고 만다.
- 그러니 추가 시간까지 다 썼으면 제발 줄 가차없이 넘어가라. 추가 시간을 다 썼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문항이 있다면 '미완결'된 상태로 넘긴다. (이 문항은 보너스 시간 돌입 시, 가장 먼저 봐도 좋다.)

02 달리지 말고, 속도를 제어하라.

- 조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조급함을 이겨내고 차분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1년동안 우리의 공부였다.
- 달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한 문장씩 무겁게 진군하라. 성급히 달려봤자, 문제에서 시간을 쓰게 될 뿐이다.
- 나와 함께 해온 너는, 문장을 읽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네가 성급하지만 않으면, 그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천천히 읽어도 좋다.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공부해온 너를 믿어라.

03 푸는 게 아니라, 각을 재는 것이다.

-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풀 각을 재다고 여겨야 한다. 문제마다 다음과 같은 표시를 남기며 전진하자.

-	맞을 가능성이 90% 이상인 문제	□	선지 다 안 보고 확신이 생긴 문제
☆	풀긴 했지만 확신이 안 서는 문제	☆☆	푸는 데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은 문제

- 정답을 고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골라라. 인생이 걸린 시험장에서, 완전한 확신은 없다. 이를 인정해야, 시험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

04 4vs1: 1개가 명확하거나, 4개가 명확하거나.

- 기본적으로 정답으로 의심되는 것을 찾았으면, 그 1개의 선지'만'을 증명하려 한다. 나머지 4개의 선지에 대한 증명 과정은 생략한다.
-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문에서 해당 선지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명시적 근거를 찾아 밀줄 치면 된다.
- 1개의 정답 선지 증명이 도저히 불가능할 땐, 어쩔 수 없이 4개의 선지가 오답임을 증명한다. (단, 증명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증명을 생략하고 답을 고른 뒤, ☆치고 넘어간다.)

05 검토는 머리가 아니라, 눈알과 손으로.

- 보너스 시간에 돌입하면 ☆/□문제부터 빠르게 검토하자. ☆☆문제는 검토를 해봤자 틀릴 확률이 크다.
- 검토할 땐 '머리'가 아닌 '눈알'과 '손'으로 해야 한다.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다보면 이상한 추론을 해낼 수 있다. 내 답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명시적 근거를 '눈'으로 찾아서, '손'으로 밀줄 치자. 그거면 충분하다.
- 검토 역시 모든 선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른 정답 선지'만'을 살피는 것이다. 괜히 다른 선지를 보다가 유혹에 빠지지 말자. (다른 선지는, 내가 고른 답이 정답이 아님을 확신했을 때 살핀다.)

< 일교시의 행동강령: 독서 >

01 당연하네. 그럴 만하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 떨어진 정보에 대해 '당연하네. 그럴 만하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는 반응이 나오게끔 읽자.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당연하네'를 외치지 말라. 필자의 말에 제대로 공감하고, 그때 비로소 '당연하네'를 외쳐라.
- 당위성 납득을 시도했지만 실패할 수 있다. 이때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표면적인 의미만이라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02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해주지 않는다.

-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나타나면 멈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1년동안 평가원의 글 흐름에 익숙해져 있기에, 글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 궁금하지 않으면, 궁금한 척 연기라도 한다. 괜히 '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미친 척 연기라도 해야 지문에 몰입할 수 있다. **제발 미친 척 연기라도 좀 해라.**

03 재구성: 의미가 뭉개지면, 판단도 뭉개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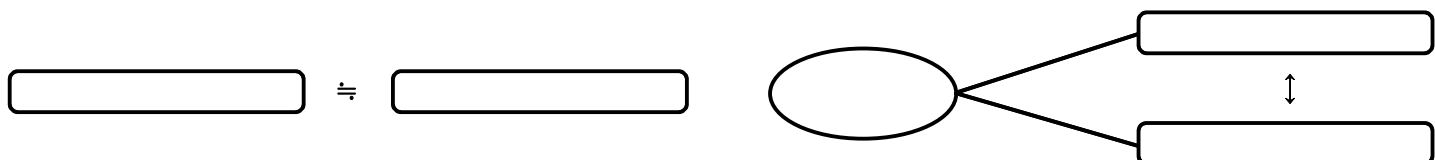
- 지문에서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표현되는 정보는, 쉬운 나만의 표현으로 재구성해줘야 한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의 '최소 기준'이구나. 운동 에너지가 이 기준을 넘어야 활성화가 진행되겠네.

- 이렇게 재구성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을 것 같다면 필요에 따라선 손으로 정리해둔다. 항상 머리로만 정보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 집중이 안 될 때는 더더욱.
- 특히 개념을 정의하거나 어떤 학자의 주장 및 이론이 제시될 때는 그 의미와 내용을 더 확실하게 재구성해준다. 출제자가 가장 좋아하는 정보다.

04 맵핑: 이어 주거나, 갈라 주거나.

- 기본적으로 정보와 정보는 이어주거나 갈라주어야 한다. 다음의 틀을 잡고, 정보를 이 틀에 끼워 맞춘다.



- 연결(=, 패러프레이징): 유사한 의미의 다른 표현에 주의하라. 결국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인식해주어야 한다.
- 구분(↔): 두 대상의 대칭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조건 출제될 사안이다.

05 이미지와 텍스트의 협응

- 필자가 이미지에 대해 설명했다면 해당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이해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두뇌는 텍스트 정보보다 이미지 정보를 훨씬 더 잘 처리한다.
-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이 힘들다면 시험지 여백에 간략히 그려도 좋다. 역시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특히 과학·기술 제재의 글에서 이미지화를 적극 활용하자. 힘겹게 기억해야 할 비례·수식 관계를 하나의 이미지로 처리해낼 수 있다. 여기에 간략한 표시·메모를 얹어가면 문제가 수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06 적자생존: 머리가 작동할 때

- 집중력이 떨어져 글이 갑자기 튀길 때, 마인드만으로 극복하려 하지 말자. 손을 움직여야 한다.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며 표시를 남기든, 핵심적인 정보를 메모하든 손을 써야 집중력이 다시 올라간다. 왜 수학은 국어만큼 잘 튀기지 않는지 생각해보라. 수학은 머리가 멈춰도, 손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 정보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구간에서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구간에서 모든 정보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보기 좋게 정리 해놓고, 문제에서 요구할 때 돌아와 확인해야 한다.

07 구체화: 구체적 사례나 수치로 이해하기

- 올해 수능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적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간은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를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 [23.06] <이중차분법> 지문에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 이중차분법과 실험적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20.06]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성> 지문에서 '자동차, 바다'의 예시를 적극 활용하여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이해한 것을 떠올리자.

08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글을 읽다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다. 이때가 키포인트다. 여기서 하수는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뒤로 달려 버린다. 고수는 멈춘다. 그리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뭘 읽어왔는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복기한다.
- 집중력이 80분동안 full로 유지되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대처다. 뭔가 잘못 읽고 있다 싶으면 멈추자. 당위성을 납득하든, 메모로 정리하든, 재구성으로 요약하든, 아니면 갈라서 차이점을 짚어내든. 네가 한 1년동안의 공부는, 네가 뭘 해야 할지 답을 알려줄 것이다. 조급함만 버리면 된다. 그러니 멈춰서 '짬은 여기서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할까?'를 생각해보자.

< 일교시의 행동강령: 문학 >

01 목표는 '인물·상황·심리'다.

- 어떤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심리'를 가지는지 주제만 잘 파악하자.
- 딱 두 가지 질문만 머릿속에 박아두고, 답을 알아내면 된다.
 - ⇒ '지금 뭘 상황임?'
 - ⇒ '애 지금 어떤 마음(심리)임?'
- 위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문학 독해의 모든 것이다. 궁금해야 한다. 궁금하지 않으면 미친 척 연기라도 해라. '그래서 지금 뭘 상황이지?! 애는 또 무슨 마음으로 이러는 거지?!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미친 척을 잘해야 국어도 잘한다.

02 기준이 잡힐 때까지는, 가속할 수 없다.

- 문학에서 처참히 망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기본적인 상황·심리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딱' 읽어나가는 것이다.
- 상황·심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어야 한다. 어떤 문장에서 상황·심리의 단서가 제시될지 모른다. 그 문장이 나타날 때까지, 가속할 수 없다.
- 계속해서 상황·심리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추측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 지금 이런 마음인가?'
- 그러다 보면, 상황·심리가 확정되는 문장이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모든 의문·추측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딱' 읽으면 이 문장을 지나치고 말게 된다.

03 '주제와의 관련성'으로 의심하기

- 평가원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작품의 주제를 읽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핵심 선지는 주제에 기반하여 만들어진다.
- 그러니 항상 주제와 선지 사이의 정합성을 따져라. 이 정합성이 유난히 높거나 낮은 선지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

<주제 = 그리움>

- ①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돌아간'과 '달리느'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가 답이었다.

04 '견덕지의 존재성'으로 의심하기

- 주제로 의심한 정답을 '확정'지으려면, 지문에서 명시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 문학에서의 '명시적 근거'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는 글자(견덕지)'이기만 하면 된다. 견덕지가 있는 해석은 적절한 해석이다.
-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견덕지가 '전혀' 없거나, 견덕지가 있어도 '반대로' 해석한 선지이다.
- ※ 견덕지는 <보기>에 존재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보기>에 실어진 견덕지를 반대로 해석하여 틀린 선지를 구성하는 일이 잦으니 이에 주의하자.

05 선지 내·간 정합성과 모순성

- 선지 자체 내의 정합성과 모순성을 따져라. 정답의 후보를 추려내는 데 유용할 것이다.
 - ①: A가 B에게 '반가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A는 B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군. ⇒ 선지 내의 정합성
 - ②: A가 B에게 '꺼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A는 B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군. ⇒ 선지 내의 모순성
- 간혹 선지 '간의' 정합성과 모순성을 활용할 때도 있다.
 - ①: A는 B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군 / ②: A는 B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군. ⇒ 선지 간의 정합성
∴ 둘은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 ①: A는 B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군 / ②: A는 B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군. ⇒ 선지 간의 모순성
∴ 둘 중 하나는 답일 가능성이 높다.

06 선지: 끊어서, 하나씩.

- 선지는 분절하여 하나씩 판단해야 한다.
- 가령,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을 판단할 때는 ¹⁾'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²⁾'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지, ³⁾전자와 후자가 서로 연관되는지, 총 3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 기호 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 '표시로 분절하고, 분절된 부분마다 ' O X △ ? ' 등의 판단 표시를 남겨줘야 한다.

07 쓰여있는 것을, 쓰여있는 대로

- 서치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특정 부분·단어만 보고 성급하게 그 의미를 결정해내는 것이다.
-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려면 특정 부분에 매몰되지 말고, 앞뒤 맥락을 차분히 '읽어내는 것'이다. 성급해지면 특정 단어만 가지고 의미를 주관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 또한 쓰여있는 것을, 쓰여있는 대로 읽어야 한다. [08.11] '사씨남정기':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 했다.> ⇒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를 '초췌한 의복'으로 잘못 읽고 문제를 틀렸다.

08 거리-정도 비교

- 실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 2개가 남아 답을 못 구할 때는 마지막 필살기로, 거리-정도 비교를 진행한다.
- 가령 <①: A는 B이겠군>, <②: C는 D이겠군> 두 선지의 거리-정도 비교는 다음과 같다.
 - A와 B 사이의 거리 vs C와 D 사이의 거리
 - 주제와 B 사이의 거리 vs 주제와 D사이의 거리
- 두 선지 중 어느 해석이 더 지문과의 거리가 좁은지(=지문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둘 중 지문 그대로를 말하는 선지가 적절하고, 해석을 더 많이 한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이 방법은 정답을 맞히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찍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목적인 방법이다. 맞힐 것을 기대하지 말고, 맞힐 확률을 그나마 높여놓고 넘어간다 생각하라.